

민홍철 “MB 사면, 통합차원 당언... ‘김경수’도 포함해야”

“윤 당선인의 요청 형식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수감된 지 형기의 절반 지나 사면의 요건 갖춰”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전 회동과 관련, “이왕에 미래를 위한 국민 통합 차원이라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을 포함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으로 만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당

연한 요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기는 어렵겠지만, 윤 당선인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형식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김 전 지사는 수감된 지 형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어서 사면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MBC 라디오 ‘김중배 시선집중’에서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 전 지사를 살리기 위해,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놓은 것이다, 이런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는 거라고 비판했다”며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청와대에서 오전 회동을 갖는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회동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건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

최이슬 기자



이준석, “합리적 공천 방안 고심”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렵게 승기를 잡은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대선 기간 지방선거 관련 발언을 합구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공천 개혁안을 논의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시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번 상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의 경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투명하지 못한 공천이 이뤄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당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은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지금까지 이력과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당의 공천도 그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예정된 만큼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

한 공천 경쟁을 허용하기 위해 이번에는 합리적인 경쟁 공천 방안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격전이 예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그만큼 겸허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진지한 자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6·1 지방선거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여기서 우리가 전국적 지지를 얻고 압승해야만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더욱 결연한 자세로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해야 될 공적 임무에 더 충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한기호 의원 역시 “우리 당원들, 당협위원장님들 잘 모시고 일하겠다”며 지방선거의 의지를 다졌다.

김재환 기자

興 광주시장 · 전남지사 후보 현역 국회의원 없는 경선 구도

광주, 이용섭시장-강기정 전 정무수석 리턴매치 주목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현역 국회의원 없는 구도로 확정됐다.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상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지난 1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중에는 사퇴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선 이후 일부 현역 국회의원이 시장, 지사 출마 가능성이 관측됐지만, 사퇴시

을 넘김에 따라 현재의 경선 구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재선을 준비하는 이용섭 시장과 지난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간 ‘리턴매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준호 변호사와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가 가세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접어 김영록 전남지사가 유리한 고지

를 점하게 됐다. 이번이 없는 한 재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그동안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주철현 의원(여수·갑) 등이 거론됐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이외에 광주시장 후보군은 정의당 장연주 광주시 의원, 진보당 김주엽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전남지사 후보군은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진보당 민정기 공무원노조 초대 전남본부장 등이 있다.

서선욱 기자

소병철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세 21억 1백만원 확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순천 풍덕중학교와 남산중학교의 ‘화장실 개보수(리모델링) 사업’과 순천 왕조초등학교와 비봉초등학교의 ‘창호 교체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1일 교육부 특별교부세 21억 1백만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풍덕중은 화장실의 칸막이, 변기 등이 썩든 때로 인해 외관상 불량하고, 오랜 사용으로 약

취가 심해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남산중은 화장실의 배관이 자주 막히고 환풍 시설 문제로 인해 마참까지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왕조초는 노후화된 창틀로 우천시 누수가 발생하고 내벽 변형 등의 외관상 문제와 난방기 가동 시 단열효과가 없었다. 비봉초 역시 창호의 노후화가 심하여 낮은 단열효과와 파손시 비산으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 발생 문제가 있었다.

소병철 의원은 해당학교 선거구 도·시의원들과 시민들의 민원을 경청하며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과 협의하여 관내 열악한 학교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풍덕중, 남산중, 왕조초, 비봉초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 도시 순천의 명성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